

내 이름은 레옹

이미경

내 이름은 레옹, 내가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의 남쪽 작은 도시다.

나를 만나려면 우선, 온통 건물 한 면을 대형 유리창으로 장식한 으리으리한 얼바인 시청과 마주 보는 샌 리온 아파트로 찾아 오시면 된다. 혹시 길 이름이 궁금하다면 하버드 길과 스탠포드 길이 만나는 코너에 극락조가 무성하게 피어 있는 작은 공원을 주의깊게 보시라. 바로 그 너머에 샌 리온 아파트 단지가 있다. 사실 공식적으로 내가 사는 곳은 이 아파트 1273호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와 관리 사무소와 수영장을 끼고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돌면 수영장 뒷문에서 가장 가까운 어두컴컴한 동에 우리 집이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샌 리



1963년 대구 출생.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동화에 관심을 갖게 돼 '한겨레 아동문학 작가과정'을 마친, 『한글점자를 만든 박두성 이야기』로 제 1회 우리교육 작가상(년픽션)을 받았음. 지금은 얼바인에 살면서 다문화 사회에 던져진 아이들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음. 미주 아동문학 회원.

온 아파트 전체가 내 구역이다.

올해로 내가 사는 아파트는 30년이나 되었다. 올봄 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작은 기념파티를 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아파트 주위에서 피어 올랐다. 난 동쪽 창문 앞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한참 털고르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그 이상한 냄새의 정체가 궁금해 집 안에 박혀 있을 수가 없었다. 난 얼른 밖으로 나가 는 문을 열어젖혔다. 그랬더니 크리스틴 아줌마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면서 귀찮은 듯 문을 따 주었다. 난 냉큼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 정체 모를 냄새는 수영장 쪽에서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냄새가 나는 길을 좇아 바람같이 수영장 모퉁이를 돌았다.

벌써 수영장 한 귀퉁이에는 바베큐 기계를 설치하느라 몇몇 라티노 아저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쪽 옆에는 보기에다 먹음직하고 신선해 보이는 야채 샐러드를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줌마가 섞고 있었다. 날 보더니 치즈 한 조각을 던져 주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난 한눈에 척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추는 특별한 감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적어도 이 바닥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 때론 거의 실신할 정도로 나 같은 고양이를 무서워 하는지 짚은 알아야 나의 품격을 그런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하얀 덮개가 깔린 식탁에는 양징맞은 화분이 놓여있고 의자마다 3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풍선이 달려 있었다. 아보카도를 으깨어 양념해 놓은 과카몰리에다 실란트로 향이 진하게 나는 멕시칸 살사에는 노란 망고가 듬뿍 들어 있었다. 그 옆에서는 커다란 프라이 팬이 달구 어지기 무섭게 손이 날랜 요리사 아저씨가 순식간에 먹음직한 브리토를 만들어 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바베큐 기계에서 나는 환상

적인 햄버거 냄새가 내 코를 마구 간지럽혔다. 한마디로 풍성한 식탁이었다.

그때였다. 내게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말소리가 들렸다. 독특한 리듬과 높낮이를 가진 말이었다. 가만히 들으면 일정한 음이 반복되어 마치 노래처럼 들리기도 했다.

사실 이 아파트에 7년째 사는 나는 이제 웬만한 나라 말엔 익숙해져 있다. 멀리서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만 들어도 어느 집에 사는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우리 집 윗층에 사는 왕명 씨의 중국말도, 건너편 1271호 집에 사는 이태리 마리오 아저씨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 ‘오 솔레 미오’는 거의 따라 부를 정도다. 그리고 얼마 전 새 일자리를 찾아 좋아하는 이란 아줌마가 주고받는 특유의 페르시아어 말도 있지만 방금 전에 내가 들은 그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

난 냉큼 그 소리를 쫓아 사무실 옆 주차장 쪽으로 쭉싸게 몸을 날렸다. 이상한 글씨가 씌여진 이삿짐 트럭에서 짐꾼들이 막 짐을 부리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어린아이가 있는 집임에 틀림없었다.

작은 테이블, 작은 식탁 의자, 그리고 나도 덩굴고 싶은 폭신한 곰돌이 소파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신기한 물건들뿐이었다. 그 왁자지껄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는 그 특유의 잔잔하고 높낮이가 일정한 노랫소리를 놓칠 수가 없었다. 웬지 내 마음을 끄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마침내 난 그 소리가 바로 트럭 뒷편, 작은 나무 의자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은을 준들 너를 살까, 금을 준들 너를 살까.

하늘아래 보배동아, 땅 위에 으뜸동아.

은자동아, 금자동아,

산같이 높거라, 바다같이 깊거라.”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당장 그 뜻을 알 순 없었으나, 잠에 겨운 아이를 두팔로 보듬어 안고 토닥거리며 부르는 걸 보니 필시 자장이 같았다.

“별아, 이제 새로운 곳에 왔으니 엄마랑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되뇌면서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를 안고 머리칼을 쓸어 주고 있었다.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였다. 난 담박에 새로 이사온 이웃집 아이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내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이사온 1279를 들어가 구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집집마다 훤히 다 안다. 아파트 사무소의 매니저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문을 잘 걸어두지 않는다. 그 틈을 타 내가 들락거려도 그다지 싫은 내색을 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난 언제나 점잖게 행동하며 절대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일, 예를 들면 화장실 휴지를 풀어놓는 일 따위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도둑고양이가 아니니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드디어 나는 1279호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주차장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나는 방금 도착한 차에서 아이의 엄마가 내리는 것을 보고 냉큼 달려갔다. 엄마의 두 손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한 손으로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다른 한 손으로는 하얀색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내가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자 아이는 내쪽을 보며 흠칫 놀랐다. 내 방울 소리 때문이었다.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뭐 말이니, 별아?”

“방금 방울소리가 들렸어, 엄마.”

“아, 별이 뒤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네.”

난 이참에 눈 인사라도 나누려고 별이를 앞서 걸어가며 내 우아한 자태를 한껏 뽐냈다.

“아이 좋아,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어, 엄마?”

갑자기 난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윤이 잘잘 흐르는 내 갈색 털과 아름다운 꼬리를 보면서도 나를 궁금해 하다니... 나는 두 사람을 앞질러 계단을 올라갔다. 그렇게도 궁금했던 바로 1279호 현관문 앞이었다.

“별아, 이 고양이가 널 좋아하나 봐. 한번 만져 볼래?”

별이는 조심조심 내 머리와 목덜미를 더듬더니 꼬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난 알았다. 별이와 내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이렇게 난 그날 별이네 집에 들어 갈 수가 있었다. 난 그 집안 구석 구석마다 내 몸을 슬쩍 부벼 놓았다. 별이가 벗어놓은 작은 신발에도, 곰돌이 소파와 작은 피아노 다리에도 조금씩 냄새를 뿌렸다. 난 사람들 사는 모습에 퍽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가 마음에 들긴 처음이었다.

별이는 귀가 아주 밝은 아이였다.

눈을 잘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어떤 때는 베란다 밖에 놓아둔 화분에 별새가 꿀을 따는 소리까지 듣는 걸 보곤 기가 막혔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별이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이야기였다. 어제도 별이는 엄마가 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 귀여운 눈썹을 깜박거리더니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엄마, 또 해 줘, 응?” 하고 팔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바로 그거야. 난 그날 이후, 별이를 위해 이야기꾼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 그게 나의 꿈이 되었다. 나, 레옹은 이 동네 반장이라고 자부하는 고양이이다. 비록 비행기를 타고 넓은 세상을 여행해 본 적은 없지만 도 대체 세상 어디에 내가 사는 이 동네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거나 하단 말인가? 난 내가 알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별이에 게 털어 놓기로 했다.

그날 오후, 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별이를 만났다. 찬물 이든 더운 물이든 몸에 물방울이 튀는 게 질색인 나는 하얀 김이 올라 오는 스파가 보이는 작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침 별이가 내 옆으로 왔다. 내 방울 소리를 들었을까?

우리는 스파 구석에서 햇볕을 쏘이며 한참을 놀았다.

“별아,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별이 엄마가 타월을 들고 별이를 불렀다.

“엄마, 고양이가 하는 얘기 들었어?”

“뭐?”

“어젯밤 아랫층에 사는 아저씨가 피자를 구웠대. 아줌마 줄려구.”

“뭐라구….에이 그럴 리가…별이, 너 피자 먹고 싶어서 그러지?”

“진짜야, 고양이가 그랬어.”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서 별이가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신기하게도 별이는 내 말을 곧잘 알아듣는 것 같았다.

사실, 내가 별이에게 해준 첫번째 이야기는 이태리에서 온 마리오 아저씨였는데 그건 순전히 아저씨가 토요일 밤마다 굽는 마르게리타 피자 냄새 때문이었다.

“별아, 너희 아랫층에 사는 마리오 아저씨는 이태리 사람인데 짬은

눈썹이 아주 멋지단다.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닷가 짝 아지른 절벽길을 운전하는 버스기사였대. 그 바다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냐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푸른 에머랄드 보석에도 덜 수 없는 정도래.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의 버스에 예쁜 아가씨가 올랐는데 아저씨는 첫눈에 그 아가씨가 맘에 들었대. 그런데 버스가 떠난 지 채 십 분도 되지 않아 아가씨에게 탈이 났다는구나 글썄. 왜냐하면 그 절벽길이 너무 꼬불꼬불해서 그만 심한 멀미가 나고 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별이가 내게 바짝 다가오며 물었다.

“아저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었지. 그런데 아저씨는 영어를 잘 모르고, 아가씨는 이태리말을 한마디도 몰라서 두 사람은 손짓 발짓으로 서로 말을 해야 했대. 그런데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대. 이상하지? 웬지 아니?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아저씨는 나중에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맛있는 피자를 구워줬대.

아가씨는 그렇게 맛있는 피자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먹어 보았지. 베이질과 토마토와 치즈만으로 만든 거였지만 뭔가 달랐지. 마리오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아가씨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구워주고 싶었고, 아가씨는 죽을 때까지 아저씨가 구워주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고 싶었대.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별아, 멋지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길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니? 우리 이담에 꼭 함께 가보자, 마리오 아저씨의 버스를 타고 말야.”

별이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막 구워낸 피자가 놓인 것처럼 코를 벌름거렸다. 난 얼른 발밑에 있는 베이질 이파리 몇 개를 부벼 별

이의 코에 대 주었다.

별이에게 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다 조금 망설였다.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별이처럼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엔 언제나 재미있는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전 바로 일 년 전 별이네 옆집에 사는 아쌀 아줌마네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였다.

“어머, 별아. 옆집 아줌마가 문 앞에 내 놓았던 오래된 화분을 싹 치워 버렸네.”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던 엄마가 그랬다.

“엄마, 고양이가 그러는데 이제 아줌마가 봄 맛이 하려고 대청소를 했대.”

“뭐라구?”

“고양이가 그랬어, 옆집 아줌마가 어제부터 금붕어를 키우고 있대.”

“애 좀 봐, 너 금붕어를 갖고 싶은 게로구나.”

아마도 별이 엄마는 별이에게 금붕어를 사다 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별이가 늘 혼자서만 놀아서 자기가 만든 이야기 속에 너무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내가 별이에게 아쌀 아줌마 얘기를 했을 때, 별이는 아줌마의 슬픈 마음을 냄새로 알 수 있다고 했다. 내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다.

“별아, 네가 이사오기 전 그러니까 지난 해 어느 봄날이었단다. 이층 아줌마네 집에서 갑자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나 슬픈 울음소리였지. 난 어리둥절 했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아쌀 아줌마네 집에서 일어난 것 같았어. 급기야 그날 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많은 이란 사람들이 아줌마네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 아줌마네 첫째 딸 멜로디가 갑자기 하늘 나라로 떠나버린 거야.

차도르라고 하는 보자기를 쓴 아줌마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들이 매일 교대로 와서 아쌀 아줌마네 집을 지켰어. 슬픔은 몇 날 몇일 동안 이어졌단다. 그리고 마침내 아줌마의 딸, 멜로디의 장례식이 치러졌지. 그날 아줌마의 집 앞은 하늘 나라로 떠나는 멜로디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찼단다.

“언니는 예뻐어?”

별이는 슬픈 얼굴로 내게 물었다.

“멜로디는 스물 한 살 아가씨였어. 가끔 내게도 말을 걸어주는 몇 안 되는 어른이었지. 하지만 멜로디는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했어. 세 살쯤 되었을까. 이란의 큰 호숫가에 살던 아줌마 고향 마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대. 아줌마는 심장이 약한 멜로디를 감싸안고 간신히 흙더미를 헤치고 나왔대. 그 일이 있은 뒤, 마침내 아쌀 아줌마는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 멜로디에게는 적절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했거든. 이곳에 와서 아줌마와 아저씨는 열심히 일을 했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어. 그리고 하루 다섯 번씩 꼭 동쪽을 향해 기도를 올렸단다.

바로 멜로디가 하늘 나라로 떠나기 며칠 전, 멜로디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아줌마가 그랬어. 그런데 벌써 일 년이나 흘렀다고.

올해 다가오는 노루즈(이란의 설날)를 위해 아줌마는 대청소를 했어. 오래된 화분과 마른 꽃들을 다 치우고 새로운 보리싹을 틔워야 한대. 그리고 오늘은 핏코에 가서 예쁜 금붕어도 두 마리 사왔지. 왜냐하면 새해의 마지막 날 강가에 가서 풀어줘야 하거든.”

별이는 내 이야기를 듣자, 두 손을 모아 흔들며 마치 금붕어가 꼬리

를 치며 강물 속으로 헤엄치는 시늉을 해 보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내 슬픔도 강물을 따라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 이름은 레옹, 난 사실 집고양이도, 도둑고양이도 아닌, 산에서 사는 산고양이였다. 그것도 일년 내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시에라’ 산에서 태어난 야생 고양이라면 누가 믿을까.

어느 날 오후였다.

별이 엄마는 아이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다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
는 별이를 보고 물었다.

“별아, 왜 거기 서 있으니, 산책 가고 싶어서 그래?”

“아니, 지금 고양이가 문 밖에 있어.”

갑자기 별이 엄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별아, 혹시 그 고양이, 진짜 네 말 알아듣는 거야?”

“엄마, 지금 고양이가 밖에서 문열어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설마...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까 문 긁는 소리를 들었어.”

“아무리...”

“빨리 문 안 열어주면 또 야옹거릴지도 몰라.”

그때를 기다려 난 ‘야옹 야옹’ 하고 애처로운 듯이 울었다.

“세상에... 원”

엄마가 문을 열어주기 무섭게 난 별이네 집으로 들어갔다. 별이는 마침 오토도톨한 점자로 된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무슨 책이니?”

내가 물었다.

“고양이와 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야.”

별이가 말했다.

솔직히 난 내가 그림책에 나오는 그런 흔한 고양이가 아닌 좀 특이한 고양이라는 걸 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누구나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거니까.

“별아, 난 시에라 산에서 태어났어. 늘 눈이 덮혀있는 높은 산이지. 말하자면 난 산고양이란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내 발바닥을 한번 만져보렴. 여기 발바닥에 덮힌 복슬복슬한 털이 느껴지지? 이걸 눈이 많은 산에서 살기 좋게 태어난 거지. 말하자면 눈길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스노우 슈즈를 신은 거라고나 할까. 그리고 내 귀에 난 긴 털과 수염도 좀 특이하지 않니?”

“하아, 정말 신기해. 나도 털 달린 눈신발 신고 싶다.”

별이가 내 발바닥 털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난 간지러운 걸 참느라고 혼났다.

“옛날, 우리 집 주인 크리스틴 아줌마의 여동생에게는 데릭이라는 남자 친구가 있었단다. 혹시 너 시끄러운 음악 들어 본 적 있지? 데릭은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가수였어. 그런데 데릭의 아버지는 목사님였는데 그런 음악을 하며 떠돌아 다니는 아들이 늘 못마땅했지.

어느 겨울날이었어. 데릭의 가족들은 시에라 산장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었지. 그런데 데릭은 바로 통나무 집 뒤편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산고양이 새끼 두 마리를 발견했단다. 아빠 몰래 얼른 자켓 주머니에 한 마리를 집어 넣었지. 깔끔한 걸 좋아하는 아빠가 알면 질색이시거든. 그렇게 야생 산고양이는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던단다.”

“그게 바로 너야?”

별이는 눈썹을 깜빡거리며 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래, 더 들어 봐.

우유를 먹이고 참치를 먹였지만 늘 집을 비우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데릭은 그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자 친구에게 고양이를 맡겼단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여자 친구도 먼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결국 여자 친구는 혼자 사는 언니인 크리스틴 아줌마에게 고양이를 떠넘겼지.

그래서 난 그날부터 아줌마네 집 고양이가 되었어. 참 먼 길을 돌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지. 마치 네가 바다를 건너 한국에서 이곳까지 왔듯이. 가끔씩 내 마음 속에는 눈 덮인 시에라 산자락이 펼쳐져.

아무리 지금 내가 사는 이 작은 아파트와 크리스틴 아줌마가 날 편안하게 해 줘도 가끔 난 눈발을 뒹굴며 살았던 나의 엄마 아빠로부터 이어오는 특별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산고양이는 태어날 때 특별한 힘을 한 가지씩을 갖고 태어난대. 어찌면 나의 신비한 힘 때문에 너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도 몰라.

별아, 넌 내가 산고양이라는 거 믿을 수 있니?”

별이는 내 말을 듣더니 내 귀에 난 긴 털을 장난스럽게 잡아당겼다. 어찌나 세게 잡아 당기던지 하마트면 멋진 내 귓털이 몇 개나 뽑힐 뻔했다.

다음날이었다. 아침마다 수영장과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는 호세 할아버지의 열쇠꾸러미가 찢렁거리는 소리에 난 잠을 깼다. 할아버지의 허리춤에는 수십 개나 되는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할아버지는 샌리온 아파트의 아침을 깨우는 알람이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3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아파트

입주자를 모으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우선 너무 오래되어 칙칙한 느낌을 주는 건물의 벽에다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투리 땅에는 캘리포니아 원산 야자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에는 노랑, 주황색으로 하늘거리는 양귀비 꽃을 심었다. 게다가 멀쩡해 보이는 수영장 시멘트 바닥을 다 걷어내더니 에머랄드빛 육각형 타일을 까느라 우리 동네뿐이 아닌 옆동네까지도 몇날 며칠 동안 드릴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게다가 요며칠 전에는 지난 여름에 만든 아파트 입구 표지판까지 썩 바뀌버렸다.

“샌 리온 아파트

새 입주자를 환영합니다.”

멋진 글씨체였다. 밤이 되어 멋진 글씨체를 비추는 노란 조명등까지 켜지면, 마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미국이 아니라 스페인의 옛성이라도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이다.

토요일 아침, 아파트 관리실 앞에 낫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 하얀색 터어반을 머리에 두르고 북실북실한 턱수염을 기른 인도 아저씨가 부인과 함께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더니 아파트 매니저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전 모하마드라고 합니다. 혹시 이 아파트에 빈 집이 난 게 있나 하구요.”

“어서오세요, 손님. 샌리온 아파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니저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그건 내게도 또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들려 줄 새 이웃이 생긴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이송희

가족사진

우리 집 벽에 걸린 큰 사진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와 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좋은 일이 있으신지 웃고 계십니다
날마다 보아도 날마다 웃고 계십니다

아빠와 엄마는
나와 동생을 안고 계십니다
날마다 보아도 날마다 안고 계십니다

나와 동생은
좋아라 손뼉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아도 날마다 손뼉치고 있습니다



1958년 서울 출생. 1984년 미국이민. 제1회 미주 아동문학 신인상 동시 가작. 현재 미 워싱턴주 거주.